

## 〈열녀춘향수절가〉 구성의 주역적 원리 연구

김 병 권\*

### 차 례

- |                 |                |
|-----------------|----------------|
| I. 서론           | IV. 주제의 형성과 井道 |
| II. 인물의 성명과 水風井 | V. 결론          |
| III. 구성의 단계와 六爻 |                |

### I. 서론

우리의 고전문학 가운데 한 작품이 <춘향전>이다. <춘향전>은 춘향이 이몽룡을 광한루에서 우연히 만나 결연하고 옥에서 필연적으로 만나 정렬부인이 되는 과정을 서술한 작품이다.<sup>1)</sup> 그리고 <춘향전>은 작품의 제목 또는 내용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이본으로 존재한다. 다양한 이본의 존재는 많은 독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춘향전>을 향유하였으며, 작품의 의미가 시대 정신에 따라서 변화된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새롭게 형성되었음을 뜻한다. <춘향전>이 변화된 모습을 보였듯이, 작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김병권, 「춘향전류 서술변용의 양상과 계보」, 『국문학논총』(태야최동원선생회갑 기념논문간행위원회), 서울: 삼영사, 1983, 178쪽.

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또한 시대 정신의 변화와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은 작품 내용에서 모색되는 것이 기본이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는 이몽룡이 『중용』, 『대학』, 『논어』, 『맹자』, 『시전』, 『서전』, 『주역』, 『고문진보』, 『사략』, 『천자문』 등을 읽는 장면이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런 책들 가운데 관심을 갖는 책은 바로 『주역』이다. 이몽룡이 『주역』을 읽는 내용은 “주역을 익난디 원은 형코 정코 춘향이 코 싹 던 코 조코 한이라”이다.(상, 제14장 후면)<sup>2)</sup> 『주역』의 육십사괘 가운데 첫 번째 괘가 重天乾卦이며, 이 괘의 괘사가 “乾은 元亨利貞하니라”이다.<sup>3)</sup> 이몽룡이 읽은 내용은 이 괘사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몽룡이 『천자문』을 읽는 내용 가운데 “벽이 축시하니 오행 팔괘로 짜지”(상, 제16장 전면)에 五行과 八卦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이십 팔속 금목수화 토지정식 누루황”(상, 제16장 전면)에서는 오행을 열거하고 그 가운데 토가 상징하는 황색에 따라서 ‘누를 황’을 풀이한다. 그리고 봉사가 옥에 갇힌 성춘향의 길흉을 점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산통을 철경디 혼드던이 어디보자 일이삼사 오륙칠 허디 좇타 상괘 로고 칠간산이로구나 어유피망헌이 소적디성이라 옛날 주무왕이 벼살할 제 이 괘을 어디 금의환형 하야슨이 엇지 안이 조홀손가 철이상지한이 친인이 유명이라 자니 서방임이 불월간의 나라와셔 평성 한을 풀것네 걱정마소 참 조코든(하, 제21장 후면~제22장 전면)

봉사는 성춘향의 길흉을 점치기 위해 산통을 흔들어서 七艮山를 얻는다. 七艮山에서 7은 역수이며, 艮은 역수 7에 해당하는 괘名이고, 山은 艮卦의 象이다. 이 괘의 占辭는 魚遊避網 小積大成(고기가 물에 놀되 그

2) 김동욱 편,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 3, 서울: 인문과학연구소, 315~356쪽에 수록된 자료를 선택하였으며, 출처는 원전에 따라서 권, 장, 면의 순으로 표시하였다.

3)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 상,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1, 145쪽.

물을 피하니 작은 것이 쌓아서 큰 것이 이루어진다), 千里相知 親人有面 (천리의 먼 곳에 있되 서로 마음을 아니 친한 사람을 만날지라)이며,<sup>4)</sup> 봉사는 이 점사에 근거하여 성춘향이 이몽룡을 만나서 평생 한을 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몽룡이 『주역』을 읽고 천자문 풀이에 오행과 팔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봉사가 주역점으로써 성춘향의 길흉을 판단한 내용은 작품을 구성한 사건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가락국기』에는 坐知王 때 점장이 解卦를 얻고 정치를 고쳐서 백성을 편하게 다스렸다고 한 기록이 있다.<sup>5)</sup> 그리고 퇴계의 문인들은 점을 쳐서 패사를 얻고 퇴계의 죽음을 예측하였다고 한다.<sup>6)</sup> 이처럼 주역을 활용하여 점을 친 일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문화 관습의 하나이었으며, <열녀춘향수절가>의 작가는 창작에 주역의 사유체계를 활용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하도록 한다. 따라서 <열녀춘향수절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한 방법을 오행 또는 주역의 체계에서 모색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춘향전>이 주역에 근거하여 해석된 논문이 이미 발표된 적이 있다.<sup>7)</sup> 이 논문에서는 <춘향전>의 내용을 여섯 단계로 구분하고 이 여섯 단계를 重地坤卦의 여섯 겹과 대비하여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춘향전>을 주역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重地坤卦가 여자의 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괘를 선택한다고 하였는데, 괘 선택이 작품에 근거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그래서 봉사가 산통에서 七良山을 얻고 성춘향의 길흉을 점쳤듯이, 작품의 내용에 근거하여 괘를 찾고 이 괘에 근거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

4) 占辭의 해석은 이가원 역주, 『춘향전』, 서울 : 정음사, 1975, 251쪽에 따랐다.

5) 일연, 『삼국유사』(이민수 역), 서울 : 을유문화사, 1985, 181~182쪽.

6) 민족문화추진회 편, 「연보」, 『국역 퇴계집』 II,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76, 213~214쪽.

7) 양명학, 「한국 소설의 주역적 연구」, 이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13~135쪽.

각된다.

이 연구는 문화 관습의 측면에서 오행 또는 주역의 사유체계를 활용하여 고전문학 해석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작품의 구성 단계를 중심으로 <춘향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먼저 인물의 성명에 근거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卦를 모색할 것이고, 다음으로 작품 구성의 원리를 六爻의 爻辭와 비교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주제 형성을 卦辭와 象傳에 근거하여 살펴볼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가장 널리 알려진 “完西溪書舖” 간행의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춘향전>의 다른 이본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다음 기회에 이본간의 내용 대비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 II. 인물의 성명과 水風井

### 1. 성명의 八卦

<춘향전>에서 중심 인물은 성춘향과 이몽룡이며, 성춘향과 이몽룡의 만남에 개입한 인물이 변학도이다. 소설에서 인명은 그 인물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을 묘사하며, 성명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은 작명에 반영된 문화 관습에 따라서 설명될 수 있으나,<sup>8)</sup> 성명에 사용한 글자의 뜻

8) 李潤生, 『正體·表德·美稱—姓名文化概說—』, 中國: 華文出版社, 1997, 4~5쪽.  
 袁眞, 『姓名學概論』, 中國: 西藏人民出版社, 2001, 1쪽.  
 김병권, 「장풍응전 구성의 성명학적 접근」, 『어문교육논집』 17, 부산: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2000, 33~52쪽.  
 김병권, 「홍길동전 창작의 주역적 원리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6, 부산: 국어교과교육학회, 2003, 235~260쪽.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 원천의 역상성명학적 연구」, 『한국문학논총』 44, 부산: 한국문학회, 2006, 61~86쪽.

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덕홍이 젊었을 때에 선생이 불러서 “너는 너의 이름의 뜻을 아는가.” 라고 물었다. 덕홍이, “모르나이다.” 하니 선생은, “덕(德)자는 행(行)을 따르고 직(直)을 따르며 심(心)을 따른 것이니, 곧 곧은 마음을 행하라는 말이다. 옛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관계를 주는 것이다. 너도 너의 이름을 본받아라.”하였다.<sup>9)</sup>

위에서 인용한 글은 퇴계와 이덕홍의 대화이다. 퇴계는 이덕홍의 성명에 사용한 德의 글자를 풀이하여 이덕홍에게 이름을 본받아서 곧은 마음을 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대화에 따르면 성명은 인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 인물은 이름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소설에서 작명자가 인물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여 작명한 경우를 볼 수 있으며,<sup>10)</sup> 작명자의 기대는 작가의 창작 의도와 인물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成春香은 봄의 향기를 이룬다는 뜻이다. 성춘향은 봄에 싹트는 새로운 생명의 향기처럼 만인에게 관심의 대상이 된다. 李夢龍은 오얏나무가 용을 꿈꾼다는 뜻이다. 용을 꿈꾼 것은 용이 죽는 내용이 아니라면 어떤 형태이든 그 인물이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관록을 얻을 것이라고 해석한다.<sup>11)</sup> 그리고 卞學道는 서둘러서 도를 배운다는 뜻이다. 서둘러서 도를 배운다는 것은 인물의 성미가 급하고 도가 잘못 실천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처럼 세 인물의 성명에 사용한 글자의 뜻은 그들의 성격과 유기적인 관계를 어느 정도 드러낸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통해서 성명은 작가의 의도에 의한 작명이라고 보아지며, 개인의 성격이나 그들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작품의 사건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9) 민족문화추진회 편, 「언행록」, 『국역 퇴계집』 II, 248쪽.

10) 김병권, 「창선감의록의 작명과 그 서술의 서사적 의미」, 『한국민족문화』 18, 부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1, 8쪽.

11) 村山智順, 『조선의 점복과 예언』(김희경 옮김), 서울: 동문선, 1991, 269쪽.

작품의 기본적인 구성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성명이 주역의 사유 체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卦를 모색하기로 한다.

<춘향전>에서 성춘향의 신분은 이본에 따라서 기녀, 기생의 딸, 봉사 친구의 딸, 성총관의 서녀, 그리고 성참판의 서녀 등과 같이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의 대상인 <열녀춘향수절가>에는 성춘향이 성참판과 퇴기 월매 사이에 출생하며, 춘향의 출생을 예고한 태몽이 서술되어 있다.

잇씨는 오월오일 갑자라 한 심을 어든니 서귀반공하고 오치영농하더니, 일위 선녀 청학을 타고 오난디 머리의 화관이요 몸의난 치의로다. 월피 소리 정〃하고 손으난 계화 일지를 들고 당의 오르며……(상, 제2장 전면~후면)

월매는 머리에 화관을 쓰고 손에 계화 한 가지를 들고 채의를 입고 당에 오르는 선녀의 모습을 꿈꾸었다. 그리고 월매가 출산할 때 향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춘향은 이런 연유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보아진다.

성춘향에서 春은 五行 가운데 木에 해당하며 봄은 목의 기운이 왕성한 계절이다.<sup>12)</sup> 그리고 좁은 머리에 쓴 화관 또는 손에 들고 있는 계화에서 발한 것이며, 화관의 꽃 또는 일지 계화는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에서 핀다. 나무는 五行으로 木에 해당하며 八卦로는 巽이다.<sup>13)</sup>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춘향은 오행 가운데 木에 해당하며, 팔괘 가운데 巽卦에 해당하고, 巽卦의 象은 風이다.

이몽룡은 남원부사를 역임하고 동부승지로 승직한 이한림의 아들이다.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양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모든 이본에 공통된다. <열녀춘향수절가>에서 그의 이름을 이몽룡이라고 지은 연유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다만 성춘향이 이몽룡을 만나려고 할

12) 홍정, 『명리학교실』, 서울: 가교출판, 2003, 81쪽.

13)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 하,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1, 610~611쪽.

때, 월매의 꿈 이야기에서 몽룡이 언급된다.

춘향모 썩 나 안자 정실업게 말을 하되 꿈이라 하는 거시 전수이 허  
사가 안이로다 간밤의 꿈을 꾸니 난디 엮는 청용 한나 벽도지의 잠겨  
보이거날 무슨 조흔 이리 잇슬가 하여던니 우연한 일 안이로다 쏘한 드  
른이 사또 자계 도련임 일홈이 몽룡이라 하니 꿈몽짜 용〃짜 신통하게  
맞치여짜(상, 제11장 후면)

월매는 꿈에서 벽도지에 잠겨 있는 용을 보았다고 한다. 碧桃池는 벽도화가 피어 있는 못이다.<sup>14)</sup> 이몽룡은 물 속에 잠긴 용으로 형상이 되며, 용은 물과 관련하여 인식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물은 五行 가운데 水이며, 八卦 가운데 坎卦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몽룡은 오행의 水에 해당하고, 팔괘 가운데 坎卦에 해당하고, 坎卦의 象은 水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성춘향의 성명은 오행 가운데 木에 해당하며, 팔괘 가운데 巽卦에 해당하고, 巽卦의 象은 風이다. 그리고 이몽룡의 성명은 오행의 水에 해당하고, 팔괘 가운데 坎卦에 해당하고, 坎卦의 象은 水이다.

## 2. 坎卦와 巽卦의 만남

<춘향전>은 성춘향과 이몽룡의 만남과 결혼의 이야기이다. 성춘향은 이몽룡과의 만남을 “오행의 연분”(하, 제13장 전면)이라고 말하였다. 五行의 緣分은 부부의 궁합을 말하며, 궁합은 四柱의 오행에 맞추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에서 성명으로 판단한 오행 또는 팔괘의 만남이 어떤 괘를 이루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성춘향과 이몽룡의 만남은 성명에 근거한 五行으로써 판단하면 木과 水의 만남이고 木과 水는 水生木으로 상생한다. 이런 목과 수의 만남은

---

14) 이가원 역주, 『춘향전』, 61쪽.

앞에서 살펴본 卦名으로써 판단하면 巽卦와 坎卦의 만남이며, 卦象으로 판단하면 風과 水의 만남이다. 풍과 수의 만남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풍이 위에 있고 수가 아래에 있는 만남이며, 이 만남은 風水渙卦가 된다. 다른 하나는 수가 위에 있고 풍이 아래에 있는 만남이며, 이 만남은 水風井卦가 된다.

風水渙卦는 이제 막 항구를 떠난 배에 비유되며, 이 배가 귀항할 때까지 무사히 항해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듯이 곁흥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내포하고 있다.<sup>15)</sup>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의 이별과 같이 헤어지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 때로 풀릴 것이라고 한다.<sup>16)</sup> 한편 水風井卦는 샘물을 퍼 올리려면 두레박이 필요하듯이 일을 성취하려면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에게 아무리 훌륭한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꽃피우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sup>17)</sup> 그리고 착하게 살아서 남에게 항상 도움을 주는 인물의 이야기가 이 때로 풀릴 것이라고 한다.<sup>18)</sup> 두 괘의 의미를 통해서 <열녀춘향수절가>의 이야기가 風水渙卦보다 水風井卦에 더 근접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작품의 구성 단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두 괘 가운데 어느 한 괘를 선택해야 한다.

먼저 괘의 일정한 법칙에 근거하여 선택할 수 있다. 육십사괘는 두 개의 팔괘를 중첩하여 이루어지며, 위에 위치한 괘를 外卦라 하고 아래에 있는 괘를 內卦라고 한다. 남녀를 내외라고 하듯이 內는 여자가 위치하는 곳이며, 外는 남자가 위치하는 곳이라고 인식된다. 이럴 경우 성춘향에 해당하는 風이 아래에 위치하게 되며, 이몽룡에 해당하는 水가 위에 위치하게 되므로 風과 水의 만남은 風水渙卦가 아닌 水風井卦를 이루게

15) 박일봉 역저, 『주역』, 서울 : 육문사, 1988, 748쪽.

16) 양명학, 「한국 소설의 주역적 연구-소설 원리와 서사 구조를 중심으로-」, 203쪽.

17) 박일봉 역저, 『주역』, 760~761쪽.

18) 양명학, 「한국 소설의 주역적 연구-소설 원리와 서사 구조를 중심으로-」, 200~201쪽.



된다.

다음으로 주역의 사유체계에 근거하여 선택할 수도 있다. 水風井卦는 아래로 겸손하고 밖으로 과감히 행하는 덕이 있다.<sup>19)</sup> 겸손은 아래에 위치한 풍의 패덕이며, 과감히 행함은 위에 위치한 수의 패덕이다. <열녀춘향수절가>의 내용에서 성춘향은 이몽룡에게 순종한 인물이며,<sup>20)</sup> 순종은 겸손과 서로 통한다고 본다. 이몽룡은 성춘향과의 결혼을 과감하게 실행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아래로 겸손함은 성춘향에 해당하므로 풍이 아래에 위치하고, 밖으로 행함은 이몽룡에 해당하므로 위에 위치한다. 따라서 성춘향과 이몽룡의 만남은 水가 위에 위치하고 風이 아래에 위치하게 되므로 風水渙卦가 아닌 水風井卦를 이루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열녀춘향수절가>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인 성춘향과 이몽룡은 水와 風으로 이루어지는 水風井卦를 구성할 수 있는 성명이다. 水風井卦가 상징하는 의미가 성춘향과 이몽룡의 만남으로 전개되는 <열녀춘향수절가>의 구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 Ⅲ. 구성의 단계와 六爻

주역에서 육십사괘인 대성괘는 여섯 개의 爻로 구성된다. 각 爻辭는 한 괘의 보편적인 의미 상황 속에서 卦爻가 지시하는 특수한 단계의 변화된 의미 상황을 독립적이고 고유한 사태에 대한 기술을 통하여 드러내고, 이것에 길흉의 평가를 행한다.<sup>21)</sup> 이처럼 한 괘의 보편적인 의미 상황 속에서 특수한 단계의 변화된 의미 상황을 지시하는 爻의 해석은

19) 김석진, 『대산주역강해』 하, 서울 : 대유학당, 1994, 156쪽.

20) 정하영, 「춘향의 항거와 그 의미」, 『춘향전의 탐구』, 서울 : 집문당, 2003, 41쪽.

21) 엄연석, 「주역에서 상과 의미의 우연적 계기와 필연적 계기」, 『주역의 근본 원리』(한국주역학회 편), 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4, 57쪽.

初젓에서 시작하여 上젓에 이르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초효는 일의 시작 단계이며, 상효는 일의 완성 단계이며, 二젓에서 五젓까지는 일의 발전 과정이다.<sup>22)</sup> 소설의 구성 단계를 주역의 궤와 관련하여 해석하려고 할 때, 六젓은 소설의 구성을 여섯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열녀춘향수절가>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처음 부분은 서사의 시대적 상황을 제시한 내용이며, 중간 부분은 월매가 기자정성을 하면서부터 시작하여 왕이 성춘향에게 정렬부인을 봉하기까지의 내용이고, 마지막은 이몽룡이 퇴사한 이후의 내용이다.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이야기의 외부에 해당한다. 이 부분의 내용은 작품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작가의 의도와 관련된다고 보이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른 글에서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중간 부분은 이야기의 중심이다. 이 중심 내용은 성춘향의 일대기로 보면 성참판과 퇴기 월매 사이에 서녀로 태어남, 일부종사를 지향한 여념 처녀로서의 성장, 이몽룡과의 불완전한 결연,<sup>23)</sup> 변학도의 수청 요구, 백성들의 춘향 수절 칭송, 왕이 정렬부인을 봉함과 같이 여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여섯 단계의 구성이 수풍정괘의 여섯 젓가 지시하는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1. 서녀 출생과 井泥不食

<열녀춘향수절가> 구성의 첫 단계는 성춘향의 출생이다. 성춘향은 성참판과 퇴기한 월매 사이에 태어난 딸이다. 월매는 성참판이 남원에서 떠날 때 젓줄이 떨어지면 성춘향을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세상을 떠남으로써 성춘향을 성참판에게 보내지 못했다고 말한다.(상, 제22장 후면) 이처럼 성춘향은 아버지로부터 버려진 서녀이며 기생의 딸이

22) 박일봉 역저, 『주역』, 24쪽.

23) 정하영, 「춘향의 항거와 그 의미」, 32쪽.

다. 서녀이며 기생의 딸이라는 신분은 적서를 차별했던 당대의 신분사회에서 정당한 지위와 결혼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성춘향의 출생은 수풍정괘의 初六과 비교할 수 있다. 초육의 효사는 “初六은 우물에 진흙이 있어 먹지 않는다. 옛 우물에 짐승이 없다(初六은 井泥不食이라 舊井에 无禽이로다)”이다.<sup>24)</sup> 初는 우물의 맨 아래에 있으니 진흙의 象이 있으며, 六이 陰으로서 아래에 거하여 물을 퍼 올리는 象이 없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다. 우물을 먹지 않음은 진흙 때문이니, 사람이 물건을 구제할 때를 당하였으나 재주가 약하고 援助가 없어서 남에게 미치지 못하면 버려지는 것과 같다.<sup>25)</sup> 따라서 초육은 재주가 약하고 원조가 없어서 남에게 미치지 못하고 버려진 상태이며, 쓰여지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성춘향의 출생과 정괘 初六의 효사를 비교해보면 유사점이 있다. 첫째, 성춘향이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것은 初六이 우물의 제일 아래에 있는 진흙이라는 것과 같다. 둘째,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성춘향은 初六이 쓰이지 않는 물이라는 것과 같다. 셋째, 아버지로부터 버려진 성춘향은 初六이 짐승도 찾지 않는 버려진 우물과 같다고 한 처지이다. 따라서 <열녀춘향수절가>에서 첫 단계인 성춘향의 출생은 수풍정괘 初六의 효사와 유기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 2. 여념 처녀로서의 성장과 井谷射鮒

<열녀춘향수절가> 구성의 두 번째 단계는 성춘향의 성장 과정이다. 성춘향은 스스로 남의 별실이 되지 말자고 다짐하였다고 한다. 성춘향의 다짐은 기생이 되지 말자는 뜻임과 동시에 일부종사를 지향한 의지이므로, 일부종사는 성춘향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며 기본적인 욕망이다.<sup>26)</sup>

24)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 하, 280쪽.

25)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 하, 281쪽.

26) 안남순, 「춘향전에 나타난 전통의 교육적 의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이런 성춘향의 성장 과정은 일부종사라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 준비한 시기이며, 이 준비는 월매와 주위 인물들이 성춘향에 대해 인물평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제시된다.

월매가 성춘향의 성장에 대해 이몽룡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칠세의 소학 일켜 수신제가 화순심을 난낫치 가라치니 씨가 잇난 자식이라 만사를 달통이요 삼강행실 뉘라셔 니 팔리라 흐리요 가세가 부족하니 지상가 부당이요 사서인 상하불급 혼인이 느껴가미 류야로 걱경이나 도련임 말삼은 잠시 춘향과 빅연기약한단 말삼이오나 그런 말삼 마르시고 노르시다 가읍소서(상, 제22장 후면~제23장 전면)

성춘향은 일곱 살에 『소학』을 읽어서 수신제와 화순심을 배우고 만사를 통달하였다. 이 내용은 성춘향이 ‘기생 구실을 마다하고 여공재질과 문장을 겸전한 여염 처자들과 다름이 없다’(상, 제9장 후면)고 이야기한 퇴인의 평과 일치한다. 그리고 ‘장강의 색, 태임과 태사의 덕행, 이백과 두보의 문필, 태사의 화순심, 아황과 여영 이비의 정절을 품었으니 천하의 절색이고 만고여중군자’(상, 제9장 후면)라고 말한 방자의 평과도 일치한다. 월매, 퇴인, 그리고 방자의 발화를 통해서 성춘향은 기생 아닌 춘향이며,<sup>27)</sup> 여공재질, 문장, 덕행, 화순심, 정절, 그리고 절색을 갖춘 여중군자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월매는 가세의 부족함 때문에 성춘향의 결혼이 재상가와 부당하고 사서인에 미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긴다. 방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춘향을 기생이라고 생각한 무수한 관장과 오입장이 양반들이 성춘향을 보려고 한다. 이처럼 성춘향은 일부종사를 지향하여 성숙한 여성의

위논문, 2003, 8쪽.

27) 조동일, 「갈등에서 본 춘향전의 주제」, 『한국고전소설』(이상택·서대석·성현경 공편), 대구: 계명대학출판부, 1974, 230쪽.

자질과 능력을 길렀지만, 성춘향의 바람과는 달리 재상이나 또는 사서인과 결혼할 수 없고 오입장이가 성춘향에게 접근한 것이다.

성춘향이 일부종사를 지향한 성장 과정은 수풍정괘의 九二와 비교할 수 있다. 구이의 효사는 “九二是 우물이 골짜물처럼 鮒에게만 대고 동이가 깨져 새도다(九二是 井谷이라 射鮒요 囊敝漏로다)”이다.<sup>28)</sup> 그는 陽剛의 재질이라서 본래 濟用할 수 있으나 아래에 있고 위로 應援이 없기 때문에 아래로 가까이 하여 鮒에게만 대는 것이며, 동이가 깨져 새는 것은 쓰임의 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sup>29)</sup>

성춘향의 성장과 수풍정괘 九二의 효사를 비교해보면 유사점이 있다. 첫째, 성춘향이 성숙한 자질을 갖춘 여중군자인 것은 九二가 陽剛의 재질인 것과 같다. 둘째, 오입장이 양반이 성춘향을 찾는 일은 九二가 鮒에게만 대는 것과 같다. 셋째, 성춘향의 결혼에 대해 재상가가 부당하다고 한 것은 九二가 쓰임의 공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열녀춘향수절가>에서 두 번째 단계인 성춘향의 성장은 수풍정괘 九二의 효사와 유기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 3. 이몽룡과의 불완전한 결연과 井渫不食

<열녀춘향수절가> 구성의 세 번째 단계는 성춘향이 이몽룡과 결연하고 이별한 내용이다. 이몽룡은 광한루에 봄 구경을 나갔다가 거기에서 성춘향을 만난다. 성춘향은 이몽룡과의 결연에 대해 어머니와 상의하여 허락을 받지만, 이몽룡은 성춘향과의 결연에 대해 부모의 허락을 받는 일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이런 결연은 불완전하며, 이몽룡은 불완전한 결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도령 잔 바다 손의 들고 탄식하여 하는 마리 니 마음디로 할진디는

28)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 하, 282쪽.

29)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 하, 283쪽.

육예를 행할 터나 그러털 못 하고 기구녁 서방으로 들고 보니 이 안이  
원통하랴 이 인 춘향아 그러나 우리 두리 이 술을 디레 술노 알고 묵자  
(상, 제25장 후면)

이몽룡은 성춘향과 육례를 행하여 결혼하지 못한 ‘개구멍 서방’이 되  
었으므로 원통하다고 탄식한다. 이몽룡이 스스로 개구멍 서방이라고 말  
했듯이, 성춘향과 이몽룡의 결혼은 불완전하고 불안하다. 성춘향과 이몽  
룡의 결혼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한림의 승직은 성춘향에게 이별을 강  
요하게 된다. 월매가 이몽룡에게 성춘향을 데리고 가라고 발악할 때, 성  
춘향은 월매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소 어만이 도련임 너머 조르지 마소 우리 모녀 평생 신세 도련임  
장중의 밋여쓰니 알아 하라 당부나 호오 이번은 아마도 이별할 박그 슈  
가 업네 이왕의 이별리 될 바는 가시난 도련임을 왜 조르릿가만는 우선  
각갑하여 그러하제 니 팔자야 어만이 전는 방으로 가웁소셔 니일은 이  
별리 될 텃가 보 익고ㄷㄷ 니 신세야 이별을 엇지 할고(상, 제41장 후면)

위의 글은 성춘향이 이몽룡과 이별을 겪어야 하는 신세의 슬픔을 한  
탄한 내용이다. 그렇지만 성춘향은 자신의 미래가 이몽룡에게 달려 있음  
을 알고 있으며, 지금은 이별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통해서 이몽룡이  
현명하면 자신을 데리고 갈 것이라는 기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이처  
럼 성춘향은 이몽룡과의 이별을 한탄하고 슬퍼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  
을 것을 기대한다.

성춘향과 이몽룡 사이의 불완전한 결연과 이별은 수풍정괘의 九三과  
비교할 수 있다. 九三의 효사는 “九三은 우물이 깨끗한데도 먹어주지 아  
니하여 내 마음에 슬퍼함이 되어 물을 길어 수 있으니, 王이 현명하면  
함께 그 福을 받으리라(九三은 井渫不食하여 爲我心惻하여 可用汲이니  
王明하면 並受其福하리라)”이다.<sup>30)</sup> 九三은 陽剛으로 거함에 正을 얻었  
으므로 쓰임의 재주를 가지고 있으며, 하괘의 위에 있으므로 청결하여

먹을 수 있는 물이다. 그렇지만 井卦의 아래에 있으므로 그 쓰임을 얻지 못한 것이다. 한편 上六과 응하여 위로 나아감이 간절하지만 쓰임을 얻지 못하여 마음이 슬퍼지는 것이다. 그리고 왕의 현명함을 구하여 복을 받는 것이니, 뜻이 행함에 간절한 것이다.<sup>31)</sup>

<열녀춘향수절가>의 세 번째 단계의 내용과 수풍정괘 九三의 효사를 비교해보면 유사점이 있다. 첫째, 성춘향이 이몽룡과 결연한 일은 九三이 쓰임의 재주를 가진 것과 같다. 둘째, 성춘향이 이몽룡을 따라가지 못하여 슬퍼한 일은 九三이 쓰임을 얻지 못하여 슬픈 것과 같다. 셋째, 성춘향이 이몽룡을 따라가고자 함이 간절한 것은 九三이 간절하게 뜻을 이루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열녀춘향수절가>의 세 번째 단계에서 성춘향이 이몽룡과 결연하고 이별한 일은 수풍정괘 九三의 효사와 유기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 4. 변학도의 수청 요구와 井甃無咎

변학도의 남원부사 부임은 성춘향에게 큰 변화와 시련을 겪도록 한다. 변화는 변학도가 성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하면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변학도의 수청 요구는 성춘향의 기본적인 욕망인 일부종사를 불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성춘향은 일부종사를 지향하기 때문에 변학도에게 수청을 시행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한다. 그리고 변학도의 요구가 강압적일수록 성춘향의 수절 의지는 더욱 강한 어조로 표현되며, 거절은 항거로 전환된다.

춘향 다시 사소 전의 옛자오되 당초의 이수지 만날 씨의 티산 서히  
구든 마음 소첩의 일심정절 밍분갓던 용밍인들 씨여너지 못할 터요 소  
진 장의 구변인들 첩의 마음 음계가지 못할 터요 공명 선성 늙픈 지조

30) 성백효 역주, 『현도완역 주역전의』 하, 284쪽.

31) 성백효 역주, 『현도완역 주역전의』 하, 284~285쪽.

동남풍은 비러씨되 일편단심 소여 마음 굴복지 못하리다(하, 제10장 전  
면~후면)

성춘향은 孟賁의 용맹이라도 일심정절을 빼내지 못할 것이며, 蘇秦과 張儀의 구변도 마음을 옮겨가지 못할 것이고, 孔明의 재주로도 일편단심을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변학도에게 항변한다. 일심정절과 일편단심은 이몽룡에 대한 일부종사의 굳은 의지를 표현한 말이다.

춘향이 옛자오되 춤불쓰이군이요 열불경이부절을 본밧고자 하옵난디  
수차 분부 이러한이 심불여사이웁고 열불경이부온이 처분디로 하옵소서  
(하, 제9장 후면)

성춘향이 변학도의 요구를 거절한 기본적인 이유는 이몽룡에 대한 일부종사이지만,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변학도에게 항거한 사유의 바탕은 烈不更二夫節을 본받는 것이다. 일부종사는 개인적 존재의 지향 가치이었지만, 열불경이부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이 지켜야 하는 규범적 가치체계의 핵심이다.<sup>32)</sup> 이처럼 성춘향은 변학도의 수청 요구 사건을 개인의 가치 문제에서 공동체의 가치 문제로 확장시킨 것이다. 따라서 성춘향의 수절은 공동체의 핵심적인 가치에 근거하여 개인적 몸가짐을 바르게 한 修身이며, 성춘향의 항거는 사회적 또는 윤리적 허물이 되지 않도록 한 행위이다.

변학도의 수청 요구에 대한 성춘향의 수절은 수풍정괘의 六四와 비교할 수 있다. 六四의 효사는 “六四是 우물에 벽돌을 쌓으면 허물이 없으리라(六四是 井甃면 無咎리라)”이다.<sup>33)</sup> 六四是 陰爻로서 陰의 자리에 거하여 비록 正을 얻었으나 陰柔로서 맑지 못하니, 다만 修治할 뿐이고 물

32) 김병권, 「춘향전의 이념적 탈중심화 담론-성춘향과 변학도의 대화 분석-」, 『한국문학논총』 20, 부산 : 한국문학회, 1997, 224쪽.

33)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 하, 286쪽.



건에 미치는 功이 없다. 그리고 陰柔이나 正에 처하였고 위로 九五의 君主를 받드니, 재주가 널리 베풀어 물건을 이롭게 할 수는 없으나 또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잘 修治하면 허물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修治하지 못하여 사람을 기르는 功을 폐한다면 우물의 도리를 잃어 그 허물이 크다.<sup>34)</sup>

성춘향이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한 행위와 수풍정괘 六四의 효사를 비교해보면 유사점이 있다. 첫째, 성춘향이 일부종사의 의지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六四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과 같다. 둘째, 성춘향이 열불 경이부라는 가치체계의 핵심을 따르고 수신한 일은 六四가 修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된다. 셋째, 성춘향이 修身함으로써 허물이 없도록 한 일은 六四가 修治하면 허물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열녀춘향수절가>에서 네 번째 단계인 변학도의 수청 요구 거절은 수풍정괘 六四의 효사와 유기적인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백성들의 춘향 정절 칭송과 井冽寒泉食

성춘향은 변학도에게 항거한 죄로 옥에 갇혀 있으면서 황능묘에서 아황과 여영 이비를 만나서 위로를 받는 꿈을 꾸다. 이 꿈의 서술은 수절의 뜻을 이룬 인물들이 성춘향의 정절을 인정한 내용이다. 그리고 성춘향은 꿈에서 앵도화가 떨어지고, 거울이 깨지고, 문 위에 달린 허수아비를 보게 된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봉사는 七良山이란 점괘를 얻고 성춘향이 이몽룡을 만날 것이라고 예언하며, 위에서 보인 성춘향의 꿈에 대해 쌍가마를 탈 꿈이므로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해몽한다. 이런 주역점과 해몽의 내용은 성춘향이 이몽룡을 곧 만나고 일부종사의 의지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한편 이몽룡은 학업에 전념하여 과거에 제일로 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 지방을 암행한다. 이때 이몽룡은 백성들로부터 성춘향, 이몽

34) 성백효 역주, 『현도완역 주역전의』 하, 286~287쪽.

룡, 변학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지금 춘향이를 수청 아니 든다 하고 형장 맛고 갖쳐쓰니 창가의 그  
런 열여 세상의 드문지라 옥결 갖튼 춘향 몸의 자니 갖던 동남치가 누  
설을 시치다는 비러 먹도 못하고 굴머 뒤여지리 올라간 이도령인지 삼  
도령인지 그 놈의 자식은 일거 후 무소식하니 인사가 그러코는 벼살은  
천이와 니 좃도 못하제(하, 제27장 전면)

㉡야드 웨야 익고 " 불상터라 춘향이가 불상터라 모지더라 ㄷㄷ  
ㄷ 우리 골 사또가 모지더라 절기 놉푼 춘향이를 우럭겁탈하러 한들 철  
석 갖튼 춘향 마음 죽난 거슬 세아릴가 무정터라 ㄷㄷㄷ 이도령이 무  
정터라 (하, 제29장 전면)

두 인용문 가운데 위의 글 ㉠은 농부가 이몽룡에게 한 말이며, 아래의  
글 ㉡은 오작교 아래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의 이야기이다. 농부들은 성춘  
향에 대해 창가에서 드문 열녀 또는 옥결같이 맑은 몸을 칭송한다. 그리  
고 여인들은 성춘향의 높은 절개 또는 철석같은 마음을 칭송한다. 그리  
고 이들은 한결같이 성춘향이 수청들지 않는다고 형장을 행한 변학도를  
모질다고 성토했으며, 무소식하고 무정한 이몽룡에 대해 상소리와 욕설을  
섞어 비난한다. 변학도와 이몽룡에 대한 성토했고 비난은 세상에 드문 열  
녀이며 절개가 높은 성춘향의 존재적 가치를 돋보이게 한다. 이런 내용  
은 성춘향이 비록 기생의 딸이지만 그 정절의 매우 높음을 강조하여 드  
러내는 효과가 있다.

백성들이 성춘향의 정절을 칭송하는 내용은 수풍정괘의九五와 비교  
할 수 있다.九五의 효사는 “九五는 우물이 깨끗하여 시원한 샘물을 먹  
도다(九五는 井冽寒泉食이로다)”이다.<sup>35)</sup> 水風井卦에서 九五는 陽爻로서  
陽의 자리에 있으므로 正位이며, 상괘의 중간 효로서 得中하고 있다. 이  
처럼 九五는 陽剛으로서 中正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재주와 덕이 盡善盡

35) 성백효 역주, 『현도완역 주역전의』 하, 287쪽.

美하다. 冽寒은 깨끗하고 시원하다는 뜻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 물을 먹을 수 있다. 사람이 우물물을 먹는 것은 우물의 도리에 至善함이 된다는 것이다.<sup>36)</sup>

<열녀춘향수절가> 구성의 다섯 번째 단계에서 성춘향이 쌍가마를 타게 될 것이라는 예언과 백성이 성춘향의 정절을 높이 평가한 내용은 수풍정괘 九五의 효사와 비교해보면 유사점이 있다. 첫째, 성춘향의 높은 정절과 수절은 九五의 달고 시원한 샘물과 같은 맥락이다. 둘째, 백성들이 성춘향의 정절을 칭송한 일은 九五가 우물의 도리에 至善함이 되는 것과 같다. 셋째, 성춘향이 이몽룡을 곧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九五의 물을 먹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열녀춘향수절가> 구성에서 다섯 번째 내용은 수풍정괘 九五의 효사와 유기적인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6. 왕의 정렬부인 봉함과 井收勿幕

성춘향이 쌍가마를 타게 될 것이라는 봉사의 예언은 여섯 번째 단계에서 이몽룡이 변학도를 봉고파직함으로써 실현된다. 이몽룡은 변학도를 봉고파직하고 남원 공사를 끝낸 후 성춘향과 함께 서울로 간다. 이로써 성춘향은 수절을 통한 일부종사의 욕망을 이루게 된다. 서울에 도착한 이몽룡과 성춘향에 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잇썩 어사또는 좌우도 순읍하여 민정을 살핀 후의 서울노 올라가 어전의 숙비하니 삼당상 입시호사 문부를 사증 후의 상이 디찬하시고 직시 이조참의 디사성을 봉하시고 춘향으로 정렬부인을 봉하시니 사은 숙비하고 물너나와 부모 전의 뵈온디 성은을 축사하시더라(하, 제39장 후면)

36)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 하, 288쪽.

왕은 이몽룡에게 이조참의 대사성을 봉하고 성춘향으로 정렬부인을 봉한다. 특히 성춘향에게 정렬부인을 봉한 것은 성춘향이 기생의 딸 또는 서녀라는 신분적 한계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이며, 왕의 덕이 사해에 두루 미치게 됨을 뜻한다. 그리고 이몽룡의 부모는 왕에 대해 성은을 축하한다. 이몽룡의 부모가 성은을 축하한 일은 성춘향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음을 뜻한다. 성춘향이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고 양반의 며느리로 받아들여진 사실은 성춘향이 일부종사의 뜻을 이루게 된 것이다. 앞에서 성춘향과 이몽룡의 만남을 水生木의 작용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水生木의 작용이 작품의 구성에서 실현된 것이라고 보아진다.

<열녀춘향수절가>에서 왕이 성춘향에게 정렬부인을 봉한 내용은 수풍정괘의 上六과 비교할 수 있다. 上六의 효사는 “上六은 우물을 길어 덮지 않고 항상함이 있는지라 크게 善하여 길하다(上六은 井收勿幕하고 有孚라 元吉이나라)”이다.<sup>37)</sup> 우물은 위로 나옴을 쓰임으로 삼는다. 上六이 井의 위에 거함은 井道가 이루어진 것이다. 물을 취하고 우물을 가리지 않음은 우물의 배품이 넓고 큰 것이다. 그리고 有孚는 항상함이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다. 元吉은 널리 배풀고 항상함이 있기 때문에 크게 선하고 길하다는 뜻이다.<sup>38)</sup>

<열녀춘향수절가>의 여섯 번째 단계에서 왕이 성춘향에게 정렬부인을 봉하고 이몽룡의 부모가 성춘향을 며느리로 인정한 내용은 수풍정괘 上六의 효사와 비교하여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성춘향이 일부종사의 욕망을 이룬 일은 上六의 항상함이 있어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둘째, 왕이 성춘향에게 정렬부인을 봉한 일은 上六이 井道를 이룬 것과 같다. 셋째, 이몽룡의 부모가 성춘향을 며느리로 인정한 일은 上六이 크게 길하다는 내용과 같다. 따라서 <열녀춘향수절가>에서 여섯 번째 단계는 수풍정괘 上六의 효사와 유기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다.

37)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 하, 288쪽.

38)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 하, 289쪽.

지금까지 <열녀춘향수절가>에서 서술된 성춘향의 일대기를 여섯 단계로 구분하고 이 단계를 성춘향과 이몽룡의 성명의 오행에 근거하여 찾은 水風井卦의 여섯 爻辭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열녀춘향수절가>의 구성 단계별 내용은 水風井卦의 爻辭와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며, 수풍정괘의 효사를 통해서 작품 구성의 단계별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IV. 주제의 형성과 井道

<열녀춘향수절가>에서 성춘향이 이몽룡과의 결혼을 완성하고 왕으로부터 정렬부인으로 봉해진 기본적인 이유는 성춘향의 수절이다. 기생의 딸로서 태어난 성춘향이 이몽룡을 향해 수절을 실천하며, 백성이 성춘향의 정절을 칭송하고, 왕이 성춘향에게 정렬부인을 봉한 일은 <열녀춘향수절가>의 주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이다. 이처럼 주제 형성에 작용하는 요소들이 작품의 구성 단계와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水風井卦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성춘향이 수절한 행위는 수풍정괘의 卦辭에서 설명한 井道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주역의 卦辭는 한 卦의 전체적인 의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sup>39)</sup> 水風井卦의 卦辭는 다음과 같다.

井은, 고을은 바꾸어도 우물은 바꿀 수 없으니, 잃음도 없고 얻음도 없으며, 오고가는 이가 우물을 우물로 쓰나니, 거의 이르러도 우물에 끈을 드리우지 못한 것과 같으니, 물병을 깨트리면 흉하다.(井은 改邑하되 不改井이니 无喪无得하며 往來井井하나니 汔至亦未橋井이니 羸其瓶이면 凶하니라)<sup>40)</sup>

39) 엄연석, 「주역에서 상과 의미의 우연적 계기와 필연적 계기」, 43~44쪽.

40)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 하, 276~277쪽.

위의 패사에서 ‘우물은 바꿀 수 없다’고 한 말은 우물이 항상하여[常]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잃음도 없고 얻음도 없다’고 한 것은 물을 길어도 없어지지 않고 버려 두어도 차지 않음이 없다는 우물의 본성을 뜻하며, 이는 우물의 덕이 항상함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오고가는 이가 우물을 우물로 쓴다’는 말은 우물에 이르는 자가 모두 씬을 얻는다는 우물의 쓰임을 뜻하며, 이는 우물의 쓰임이 두루함[周]이라는 것이다. 즉 우물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井道는 常과 周이다.<sup>41)</sup> 그리고 ‘거의 이르러도 우물에 끈을 드리우지 못한 것과 같으니, 물병을 깨트리면 흉하다’고 하였다. 우물에 끈을 드리우지 못한 것이나 물병은 깨트린 것은 모두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물을 퍼 올리지 못한 것은 물이 쓰임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sup>42)</sup> 따라서 井道는 도의 항상함과 쓰임의 두루함이며, 정도를 실현하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구성 단계에서 살펴보았던 춘향의 정절은 수풍정괘의 패사와 비교할 수 있다. 첫째, 성춘향이 일부중사를 위해 수절한 행위는 井道 가운데 도의 항상함과 같은 맥락이다. 둘째, 기생의 딸이지만 수절한 성춘향의 행위와 이에 대한 백성들의 칭송은 井道 가운데 쓰임의 두루함과 서로 통한다. 따라서 성춘향의 수절은 수풍정괘에서 설명한 도의 항상함과 쓰임의 두루함이라는 井道와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열녀춘향수절가>의 주제는 井道와 관련하여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백성이 성춘향의 정절을 칭송하고 왕이 성춘향에게 정렬부인을 봉한 내용은 수풍정괘의 象傳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주역의 상전은 먼저 패상을 드러낸 다음에 인간은 이것이 드러내는 상징의 의미를 본받아 어떻게 행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다.<sup>43)</sup> 수풍정괘의 상전은 “나무 위에 물이 있음이 井이니, 군자가 보고서 백성을 위로하여 서

41)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 하, 277쪽.

42)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 하, 279쪽.

43) 고희민, 『주역철학의 이해』(정병석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6, 398쪽.

로 돕는 것으로 권면한다(木上有水井이니 君子이하어 勞民勸相하나니라)”이다.<sup>44)</sup> 이 내용은 군자가 井道를 본받아서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행위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뒷부분에서 ‘백성을 위로하고 서로 돕는 것으로 권면한다’라고 하였다. 백성을 위로함은 우물의 쓰임을 본받은 것이며, 군주로서 백성을 기르는 것이다. 서로 돕는 방법으로 권면함은 우물의 베품을 본받은 것이며,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기르게 하는 것이다.<sup>45)</sup> 그러므로 수풍정괘에서 제시한 군자의 행위 기준은 우물의 도를 취하여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기르도록 교화하는 왕도 정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성이 성춘향의 정절을 칭송하고 왕이 성춘향에게 정렬부인을 봉한 일은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기르도록 왕의 교화가 향곡에까지 펼쳐지는 백성 중심의 왕도정치 실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열녀춘향수절가>의 주제 형성은 노민권상을 통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제시한 수풍정괘의 井道와 象傳에 근거하여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구성 단계에서 살펴본 성춘향의 서녀 출생, 여념 처녀로서의 성장, 이몽룡과의 불완전한 결혼, 변학도의 수청 요구, 백성들의 춘향 정절 칭송, 왕의 정렬부인 봉함 등의 내용은 주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고 하겠다. 이런 방편들이 주제의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수풍정괘의 井道와 관련하여 계속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 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춘향전>의 한 이본인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

44) 성백효 역주, 『현도완역 주역전의』 하, 279쪽.

45) 성백효 역주, 『현도완역 주역전의』 하, 280쪽.

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먼저 <열녀춘향수절가>의 내용에 근거하여 성춘향과 이몽룡의五行에 따른 卦를 모색하였다. 성춘향의 성명에 근거한 오행은 木이며, 목의 팔괘는 巽卦이며, 손괘의 상은 風이다. 이몽룡의 성명에 근거한 오행은 水이며, 수의 팔괘는 坎卦이며, 감괘의 상은 水이다. 성춘향과 이몽룡의 만남은 오행으로 水生木의 만남이고, 팔괘의 만남은 성춘향의 風이 하괘이고 이몽룡의 水가 상괘인 水風井卦를 구성한다. 따라서 성춘향과 이몽룡의 성명은 水와 風으로 이루어지는 水風井卦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작명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열녀춘향수절가>의 구성 단계를 水風井卦의 六爻와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 단계에서 성춘향이 서녀이며 기생의 딸로서 태어난 내용은 수풍정괘에서 初六은 우물에 진흙이 있어 먹지 않는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성춘향이 여중군자로 성장하였지만 오입장이 양반들이 성춘향을 찾는다는 서술은 수풍정괘에서 九二는 우물이 골짜기 물처럼 鮒에게만 대고 동이가 깨져 샌다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성춘향이 이몽룡과 결연하고 이별한 내용은 수풍정괘에서 九三은 우물이 깨끗한데도 먹어주지 아니하여 내 마음에 슬퍼함이 되어 물을 길어 올 수 있으니 王이 현명하면 함께 그 福을 받으리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성춘향이 변학도의 수청 요구에 대해 죽음을 각오하고 수절한 내용은 수풍정괘에서 六四는 우물에 벽돌을 쌓으면 허물이 없으리라고 한 내용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 봉사가 성춘향의 꿈을 해몽하고 백성들이 성춘향의 정절을 칭송한 내용은 수풍정괘에서 九五는 우물이 깨끗하여 시원한 샘물을 먹는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단계에서 왕이 성춘향에게 정렬부인을 봉한 내용은 수풍정괘에서 上六은 우물을 길어 덮지 않



고 항상함이 있으므로 크게 선하여 길하다고 한 내용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열녀춘향수절가>의 구성은 수풍정괘의 여섯 효와 유기적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열녀춘향수절가>의 주제 형성을 수풍정괘의 의미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성춘향이 수절을 실천한 일은 수풍정괘에서 설명한 道의 항상함과 쓰임의 두루함이라는 井道와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며, 왕이 성춘향에게 정렬부인을 봉한 일은 勞民勸相을 통한 왕도정치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열녀춘향수절가>의 주제 형성은 수풍정괘의 卦辭와 象傳에 근거하여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역적 사유체계와 관련하여 춘향전의 구성 원리를 살펴본 이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춘향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시각을 작품의 내용에 근거하여 모색한 점이다. 둘째는 작품의 인물 작명, 구성의 단계, 주제 형성을 주역의 사유체계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었던 점이다. 이러한 시각과 방법은 문화 관습에 근거하여 고전소설의 해석 방법을 이론화하는 하나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주제어 : 춘향전, 인물의 성명, 작품 구성 단계, 주제 형성의 원리, 사유 체계, 주역, 수풍정괘, 六爻

## 참고문헌

- 고희민, 『주역철학의 이해』(정병석 역), 서울 : 문예출판사, 1996.
- 김동욱 편,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 3, 서울 : 인문과학연구소, 315~356쪽.
- 김병권, 「춘향전류 서술변용의 양상과 계보」, 『국문학논총』(태야최동원 선생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서울 : 삼영사, 1983, 177~196쪽.
- 김병권, 「춘향전의 이념적 탈중심화 담론-성춘향과 변학도의 대화 분석-」, 『한국문학논총』 20, 부산 : 한국문학회, 1997, 219~231쪽.
- 김병권, 「장풍운전 구성의 성명학적 접근」, 『어문교육논집』 17, 부산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2000, 33~52쪽.
- 김병권, 『장풍운전과 문화관습』, 부산 : 세종출판사, 2001.
- 김병권, 「창선감의록의 작명과 그 서술의 서사적 의미」, 『한국민족문화』 18, 부산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1, 1~22쪽.
- 김병권, 『홍길동전 창작의 주역적 원리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6, 부산 : 국어교과교육학회, 2003, 235~260쪽.
- 김병권, 「구지가의 음양오행적 읽기」, 『지역문학연구』 10, 부산 :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 39~58쪽.
-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 원천의 역상성명학적 연구」, 『한국문학논총』 44, 부산 : 한국문학회, 2006, 61~86쪽.
- 김병권, 「퇴계의 몽괘 완상과 몽천 창작의 의미」, 『퇴계학논총』 12, 부산 : 퇴계학부산연구원, 2006, 107~127쪽.
- 김병권, 「퇴계의 <열정> 창작 원리 연구」, 『한국민족문화』 30, 부산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7, 161~179쪽.
- 김석진, 『대산주역강해』, 서울 : 대유학당, 1994.
- 김우재, 『자해비전 사주와 성명학』, 서울 : 삼신서적, 1971.
-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퇴계집』,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76.

- 박일봉 역저, 『주역』, 서울 : 육문사, 1988.
- 배영희, 「구운몽과 동서철학의 만남-역학을 중심으로-」 상, 서울 : 민속원, 2001.
-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2001.
- 안남순, 「춘향전에 나타난 전통의 교육적 의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양명학, 「한국 소설의 주역적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엄연석, 「주역에서 상과 의미의 우연적 계기와 필연적 계기」, 『주역의 근본 원리』(한국주역학회 편), 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4, 39~81쪽.
- 이가원 역주, 『춘향전』, 서울 : 정음사, 1975.
- 일연, 『삼국유사』(이민수 역), 서울 : 을유문화사, 1985.
- 정하영, 『춘향전의 탐구』, 서울 : 집문당, 2003.
- 조동일, 「갈등에서 본 춘향전의 주제」, 『한국고전소설』(이상택·서대석·성현경 공편), 대구 : 계명대학출판부, 1974, 227~242쪽.
- 조봉우, 『비전 성명대전』, 서울 : 명문당, 1993.
- 홍정, 『명리학교실』, 서울 : 가교출판, 2003.
- 村山智順, 『조선의 점복과 예언』(김희경 옮김), 서울 : 동문선, 1991.
- 余雪鴻, 『姓名學秘理』, 臺灣 : 龍吟文化事業, 1997.
- 袁 眞, 『姓名學概論』, 中國 : 西藏人民出版社, 2001.
- 李潤生, 『正體·表德·美稱-姓名文化概說-』, 中國 : 華文出版社, 1997.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theory of “The Faithfulness Story of Virtuous Woman, Chunhyang” in the Book of Changes(周易).

Kim, Byeong-Kwe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Faithfulness Story of Virtuous Woman, Chun-hyang”, which is the Wanpan(完板) Woodblock Edition of Chunhangjun, and to find a method of the exposition in the thinking system of the Book of Change(周易).

First of all, I identified that the meaning of Chun-hyang Seong and Mong-Rowong Lee, the names of main characters in Chunhangjun, implied SooPoongJungKwae(水風井卦) represented water and wind.

The second, by comparing the constructive steps of the work with the Lines(爻) of SooPoongJungKwae(水風井卦), I found that six steps of the work were connected with six Lines of SooPoongJungKwae(水風井卦).

Finally, With studying the principle of main subject based on the meaning of SooPoongJungKwae(水風井卦), I Explained that this work comforted the people’s hard life and the enlightenment to encourage them was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So I recognized that this work expressed the realization of the royal regime for the people.

You can find two meanings here. The first point is that the way of understanding and analyzing Chunhangjun are based on the contents of itself. The second point is that names of its characters, steps of its

composition and its subject are expressed based on the thinking system of the Book of Change. I believe that these of views and studying method will be a foundation to make a formation theory of Korean classical novels.

Key Words : Chunhangjun(春香傳), the names of its characters, the constructive steps of the work, the principle of main subject, the thinking system, Book of Change(周易), SooPoongJungKwae(水風井卦), six Lines(六爻)